

국립국어원 소식

1. 국립국어원 말다듬기위원회, 다듬은 말 선정

- 시에스(C.S. Customer Satisfaction)의 다듬은 말: 고객 만족
- 데모데이(demoday)의 다듬은 말: 시연회
- 플레이팅(plating)의 다듬은 말: 담음새
-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의 다듬은 말: 등지 내몰림
- 리무버(remover)의 다듬은 말: (화장) 지움액

‘시에스(C.S. Customer Satisfaction)’는 기업 경영에서 고객의 만족감을 높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찾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이를 ‘고객 만족’으로 다듬었다. ‘데모데이(demoday)’는 어떤 계획을 실시할 예정인 날 이전에 먼저 행사를 진행하는 날을 가리킨다. ‘시연회’로 다듬었다.

음식을 내기 직전에 먹음직스럽게 보이도록 그릇이나 접시 위에 담고 장식 을 더하는 ‘플레이팅(plating)’은 ‘담음새’로 다듬었다.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은 구도심이 번성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을 말한다. 이를 ‘등지 내몰림’으로 다듬었다.

‘리무버(remover)’는 특정한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용 물질이다. 이를 ‘(화장) 지움액’으로 다듬었다.

2.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심의 결과

-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국립국어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료 위치: 국립국어원 누리집(<http://korean.go.kr>)
- ‘자료 찾기’ → ‘연구 결과’ → ‘기타 자료’ → 검색: 검색어 ‘역대’

-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실무소위원회 2016년 제4차 심의 확정안 (2016. 3. 18.)
-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실무소위원회 2016년 제5차 심의 확정안 (2016. 3. 25.)
-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실무소위원회 2016년 제6차 심의 확정안 (2016. 4. 1.)
-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실무소위원회 2016년 제7차 심의 확정안 (2016. 4. 7.)
-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실무소위원회 2016년 제8차 심의 확정안 (2016. 4. 15.)
-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실무소위원회 2016년 제9차 심의 확정안 (2016. 4. 22.)
- 제126차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결정안(2016. 4. 27.)
-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실무소위원회 2016년 제10차 심의 확정안 (2016. 5. 10.)
-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실무소위원회 2016년 제11차 심의 확정안 (2016. 5. 13.)
-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실무소위원회 2016년 제12차 심의 확정안 (2016. 5. 20.)
-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실무소위원회 2016년 제13차 심의 확정안 (2016. 5. 27.)
-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실무소위원회 2016년 제14차 심의 확정안 (2016. 6. 3.)
-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실무소위원회 2016년 제15차 심의 확정안 (2016. 6. 10.)
-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실무소위원회 2016년 제16차 심의 확정안 (2016. 6. 17.)

3. 국립국어원, ‘한국수어 정책 토론회’ 개최

국립국어원은 2016년 4월 8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3.1. <한국수화언어법> 시행 전 토론의 장 열려

지난 2월 3일 제정된 <한국수화언어법>은 2016년 8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국립국어원은 농인 당사자와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하고 체계적인 한국수어 정책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 (1) 한국수어 전문 조직 및 인력, 교육 과정 개발 등에 대한 제도 기반 마련
- (2) 한국수어 연구, 실태 조사, 교육 자료 개발 등에 대한 수어 연구
- (3) 수어 홍보 및 보급과 민간단체 지원 등 수어 확산

이 토론회는 우주형 나사렛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최상배 공주대학교 교수, 원성옥 한국복지대학교 교수 등이 발제를 맡았으며, 김정환 서울농아인협회 중랑구지부장, 진중순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윤석민 국립국어원 한국수어연구자문위원회 위원 등이 토론을 진행하였다. 또한 객석의 농인 당사자들이 토론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되었다.

3.2. 한국 농인들의 언어권 확보 위한 법 제정

<한국수화언어법>(법률 제13978호) 정의(제3조)

- **한국수어**: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
- **농인**: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

2015년까지만 해도 26만 명에 가까운 한국 농인들은 일상생활이나 전문 영역에서 한국수어로 소통할 권리를 얻지 못하고 살아왔다. 이들은 언어권(言語權) 확보를 위해 힘차고 끈기 있는 수어로 호소해 왔으며, 장애인계 유관 단체들의 응원도 이어졌다. 지난 2013년 한국수어를 고유한 언어로 인정하고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로 선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4개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후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하여 교육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도 해당 법 제정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협의해 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이와 같은 민관 모두의 노력에 힘입어 선진적인 <한국수화언어법>이 2015년 12월 31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3.3. 한국수어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 이뤄져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한국수어를 청각에 장애가 있는 농인들이 소리를 대신하여 손짓 등 몸동작으로 흉내 내기를 하는 정도로만 알고 있다. 심지어 일부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농인들이 한국어로 말하는 사람의 입 모양만 보고도 그 뜻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는 농인에게 전혀 생소한 언어이다. 마치 한국어 화자가 영어나 중국어를 대하는 것과 다름없는 외국어와 같아서 이런 외국어를 입 모양만 보고 알아듣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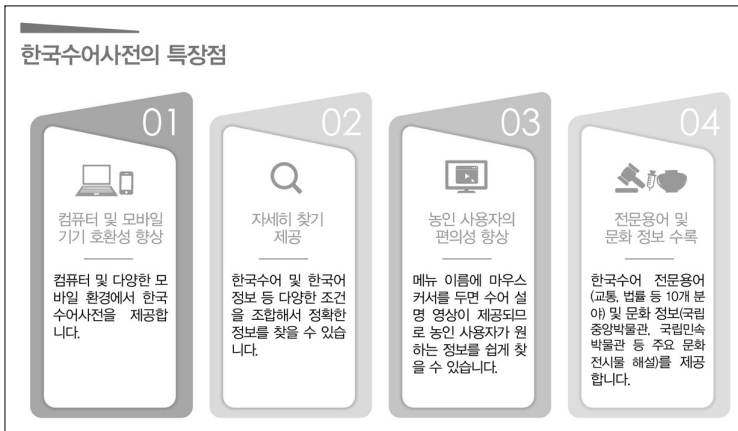
우리나라 농인의 모어(母語)는 한국수어이다. 한국수어는 한국의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한국어와는 구별되는 고유한 형식의 독립적 언어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농인들이 한국수어로 불편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등 농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 나가야 할 정책 방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졌다.

4. 또 하나의 언어 보물 상자, 《한국수어사전》 새롭게 개통

4.1. 새로운 《한국수어사전》의 필요성 대두

국립국어원은 한국수어를 모어(母語)로 사용하는 농인의 언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한국수어사전(<http://sldict.korean.go.kr>)》을 2016년 4월 20일 개통했다. 이 사전은 농인과 청인 모두 한국수어 일상용어와 전문용어에 대한 한국어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기존의 한국수어 웹 사전과 모바일 앱 사전, 그리고 책으로만 보급되던 전문용어 사전을 통합하여 새롭게 정비한 것이다.

국립국어원은 지난 2005년부터 (사)농아인협회와 더불어 한국수어 일상용어를 수록한 《한국수화(한국수어)사전》과 법률, 교통, 종교 등 10개 분야 한국수어 전문용어 사전을 편찬해 왔다. 이 중에서 일상용어 사전은 인터넷 웹과 모바일 앱으로도 제공해 왔으나 사용 기기에 따른 제약이 있었고, 전문용어 사전은 종이로만 제작되어 활용도가 떨어졌다.



4.2. 국립국어원, 한국수어 자료 구축을 위해 노력 중

이번에 새롭게 개통한 《한국수어사전》은 반응형 웹 사전으로 구축되어 다양한 기기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그동안 종이 사전으로만 보급되어 오던 한국수어 전문용어도 포함하고 있어 사용자 편의성과 활용도를 높였다. 또한 사전 사용법을 수어 동영상으로 제공하고, 표제어를 클릭하지 않고 커서만 가져다 놓아도 수어 해설 영상이 바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하여 보이는 언어인 한국수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농인들이 좀 더 편하게 사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

국립국어원은 이번 《한국수어사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국수어의 특성이 잘 반영되는 새로운 형식의 사전을 기획하고 있다. 앞으로 만들어질 《한국수어사전》은 수형(한 손 또는 두 손이 결합하여 만들어 낸 의미 있는 형태), 수위(의미 있는 손 형태의 위치) 등 한국수어의 구성 요소가 잘 드러나도록 설계되어 농인이 더욱 편리하게 사전을 찾아볼 수 있도록 구축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지금의 한국어-한국수어 어휘 대조집 차원을 넘어서 뜻풀이도 한국수어로 제공하는 진정한 의미의 《한국수어사전》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5. 국립국어원, 과천과학관과 한국수어 과학 정보 구축 업무 협약 체결

국립국어원과 국립과천과학관은 5월 31일(화요일) 오전 11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과학 정보 구축 및 보급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하였다. 두 기관은 과학 한국 건설을 위해서는 우리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과학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우리말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과학 정보를 함께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업무 협약에서 주목할 점은 장애로 과학 정보 습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을 위해 한국어 외에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와 한국점자로도 과학 정보를 구축하기로 한 것이다.

전문 분야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용자에게 익숙한 모어(母語)로 알기 쉽게 설명된 자료가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한국수어가 모어인 청각장애인을 위한 언어 자료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특히 과학 정보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국립국어원과 국립과천과학관은 청각장애인의 과학 정보 접근성을 꾸준히 높여 나가기로 하고, 그 첫 사업으로 올해는 국립과천과학관에 전시된 과학 체험물 50여 점에 대한 한국수어 해설 동영상을 제작하여 전시 관람에 활용할 예정이다. 국립국어원은 지난해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전시물 650여 점에 대한 수어 해설 동영상을 제작하여 제공한 바 있으며, 올해는 대한민국의역사박물관과 더불어 국립경주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 국립공주박물관, 국립진주박물관 등 지방 박물관 전시물에 대한 수어 해설 동영상 자료도 구축하여 관람객에게 서비스할 계획이다.

국립국어원과 국립과천과학관은 바르고 쉬운 한국어로 과학 자료를 제작하고 청각장애인에게는 그들의 모어인 한국수어로, 시각장애인에게는 손으로 읽는 한국점자로 해설 자료를 지속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우리 사회 구성원 누구나 과학 정보를 자유롭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6. 국립국어원, 제2회 국어사전 진흥 공모전 개최

국립국어원은 국어사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2016년 국어사전 진흥 공모전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말 사전”을 개최한다. 이 행사는 누구나 사전 편찬에 참여할 수 있고, 편찬 과정을 볼 수 있는 사용자 참여형 국어사전 《우리말샘》의 개통(2016년 10월 5일)을 앞두고, 낱말의 뜻을 직접 해 봄으로써 우리말의 가치를 깨닫고 아름다운 우리말을 담은 사전을 함께 만들어 가자는 취지로 기획되었다.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말 사전” 공모전

- 공모 부문: 창의적 뜻풀이(제시어 10개 중 5개 이상 뜻풀이)
 - ※ 제시어: 한글, 멋, 꿈, 미래, 샘, 함께, 신나다, 해맑다, 정겹다, 만들다
- 응모 기간: 2016년 8월 1일(월)~8월 15일(월)
- 시상식: 2016년 10월 5일(수)/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회의장(20층)
- 수상작 전시회: 2016년 10월 8일~9일/2016 한글문화큰잔치 (광화문 광장)
-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말 사전” 누리집

(http://www.korean.go.kr/front/board/boardStandardView.do?board_id=4&mn_id=17&b_seq=1782&pageIndex=1)

6.1. 창의적 뜻풀이로 만들어지는 우리말의 미래

공모전은 제시된 10개의 낱말 중 5개 이상을 자기만의 개성으로 뜻풀이하는 것으로, 뜻풀이가 연상되는 사진이나 영상을 첨부할 수 있다. 제시어는 ‘한글의 멋을 담은 우리말이 자꾸자꾸 샘솟는 해맑은 미래를 꿈꾸고, 우리 모두 정겹게 소통하며 우리말 사전을 신나게 함께 만들어 가자’는 뜻을 담아 선정

되었다. 이 낱말의 선정에는 우리말을 사랑하고, 바르게 사용하는 기관의 대표(고은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이사장, 문효치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정규성 한국기자협회 회장, 고영수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김성규 한국어문학술단체연합회 대표, 고용우 전국국어교사모임 이사장)가 참여하였다.

6.2. 개인이나 단체, 외국인도 응모 가능

공모전에는 우리말을 사용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응모작 접수는 8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이다. 심사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외부 심사위원(시인, 기자, 국어국문학 전문가, 국어 교사 등)이 진행하며, 대상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4명, 장려상 8명, 단체상 3명 등 총 18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상식은 10월 5일 《우리말샘》 개통 행사와 함께 열리며, 수상작은 ‘2016 한글문화큰잔치’의 일부로 진행될 ‘2016년 국어사전 진흥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에서 공개된다. 자세한 행사 내용은 국립국어원 누리집 (http://www.korean.go.kr/front/board/boardStandardView.do?board_id=4&mn_id=17&b_seq=1782&pageIndex=1)에 안내되어 있다.

6.3. 《우리말샘》 개통 행사에서 수상작 뜻풀이 입력 시연

대상 수상자는 《우리말샘》 개통 행사에서 자신이 뜻풀이한 낱말을 직접 입력함으로써 ‘《우리말샘》 최초 어휘 등록자’로 기록될 것이다. 2016년 국어사전 진흥 공모전은 한국어 사용자가 새롭게 사용하는 낱말을 사전에 올리고 고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함께 만들어 살아 움직이는 사전’을 위한 준비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낱말의 폭넓은 의미와 다양한 쓰임을 다시 한 번 되새겨서 우리말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깨닫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7. 인사 이동

7.1. 임용

- 홍해진(학예연구사 시보): 신규 임용, 어문연구과 근무(4월 16일)

7.2. 전보 발령

- 김동안(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어진흥과(1월 29일)
- 정시화(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 → 교육연수과(2월 1일)
- 원경덕(행정주사): 기획운영과 → 문화체육관광부 재정담당관(4월 11일)
- 서광철(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실 → 교육연수과(4월 16일)
- 박성욱(행정주사보):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 → 기획운영과(4월 27일)
- 이주형(행정주사보): 기획운영과 →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5월 25일)
- 이현우(행정주사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 → 기획운영과(5월 25일)
- 유은숙(행정서기): 국립민속박물관 → 기획운영과(6월 2일)

7.3. 승진

- 이보라미(학예연구사): 학예연구사 → 학예연구관(5월 25일)

7.4. 대우공무원

- 김미경(행정서기): 7급(행정주사보) 대우(4월 1일)

7.5. 휴직

- 김아영(학예연구사): 육아휴직 연장(2016년 4월 3일부터 2017년 4월 2일 까지)